유타 대학촌교회 소식

선교부소식

1.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선교/전도에 온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2. 각 목장이 선교/전도팀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유타 지역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3.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즐거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그 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4.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선교전략을 공유하고 선교지 후원을 전 교회 팀사역으로 잘 감당하도록
5. 청년부와 연합하여 쉐카이나 campus경배와 찬양을 도우며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campus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6. 교육부와 협력하여 youth들이 어려서부터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8 월 교회기도제목

1. 8월 캠퍼스 전도가 기도로 잘 준비되고, 또 잘 이루어져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2. 9월 5일에 열리는 쉐카이나 캠퍼스 찬양과 경배 집회가 이 지역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회가 될 수 있기를

SoulLake 편집 후기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 소식지를 통한 문서선교가 준비되는 것일까? 적당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걸까?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늘 무궁무진하고 놀랍습니다! <K>

대학촌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구분	예배	시간	구분	예배	시간
주일	1부 예배	09:50 AM	주중	08' 새벽예배	월-금 06:00 AM 토 07:00 AM
	2부 예배	11:00 AM		금요찬양예배	금 07:00 PM
	Youth	09:30 AM		청년부 예배	금 08:20 PM
	주일학교	11:00 AM		목자훈련	목 06:30 PM
	한국학교	01:30 PM		Provo 제자훈련	화 07:00 PM
	제자훈련	02:30 PM		쉐카이나 캠퍼스 경배와 찬양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07:30 PM

발행인: 김철홍 목사 / 편집인: 최희석, 송강, 함지하, 김효신 / 발행일: 2008년 7월 27일
유타대학촌교회 회지복간 제 53호
1724 E. 2100 S. Salt Lake City, Utah 84106
전화: 801-467-4337 (교회), 801-943-3904 (담임목사관) / Email: chulhongkim@ucccutah.org
본 유타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는 교회 홈페이지(http://www.ucccutah.org)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August, 2008

목차

- 생(生) 수의 강, Soul Lake – 김철홍 목사
- 십일조 이야기 – 청년 함지하
- Before &After, 감사하세요! – 원광식 안수집사
- 유타대학촌교회 소식

미 유타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
The Soullake
통권 제 53호 (8)-02 2008년 07월 27일

생(生)수의 강, Soul Lake

김철홍 목사

Soul Lake이 이름이 지어지고 문서 선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고민하며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들 드립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왔고를 부탁하고 본인들이 직접 취재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열심히 했지만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미루기도 하고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제 때에 출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따끈따끈했던 소식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식은 소식이 되어 버렸고 부족한 공간을 채우다가 보니 이미 지난 일들이나 교회 행사표를 알리는 것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성도님들의 관심도 줄어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분기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기사를 싣는다면 분명히 soul lake은 다시 회생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interview라든지, 앞으로 할 행사에 대해 주관하실 분의 계획을 소개한다든지, 성도님들의 알려지지 않은 간증을 소개한다든지, 성도님들의 한 해의 결단을 알린다든지. 이런 소식이 실리면 독자들은 보지 말라고 해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소식을 주고 잔잔한 감동을 주려면 성도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를 바쁩니다.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이라면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해보지 않아서 못한다거나 어렵다거나 없다거나 잘라서 말하면 이 문서사역은 중단이 됩니다. 없는 이야기를 일부러 만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간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제 삶에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런 것은 전에 해 보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탁 받을 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해 보시면 됩니다. 글을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 있습니까? 쓰다가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혹시나 쓰시다가 자신의 온사를 발견하게 될 지 누가 압니까?

금년에는 Soul Lake을 통해 서로를 잘 알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우리 모두가 관심과 애착을 갖고 협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Soul Lake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SL)

십일조 이야기

By 청년 함지하

높은뜻 숭의교회를 맡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은 십일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십일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그러면서 십일조 생활을 지키는 성도를 특전사 대원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미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넘기 힘든 십일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나는 훈련과 노력으로 이겨내면, 결국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만큼의 실력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무 목적 없이 돈 더 많이 내자고, 훈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일조라는 점프대를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돈에 대한 제어의 힘을 갖기 위해 서 만드신 것이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일조 생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집이 쫄딱 망한 이유로 유학 중간에 오랜 기간 귀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 최대 위기였음이 분명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돈 천 원짜리 한 장 달랑 지갑에 넣어 다니며 일거리를 찾던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또 당시 집으로 수도 없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벨 소리는 제 인생이 위기임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 때, 그 위기의 순간 때 점프대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전 부잣집 아들일 때는 부모님께 받는 용돈 중에서 드리는 십일조가 어렵지 않았겠지만, 너무도 가난하던 때에, 먹을 것 아껴가며 드려야 하는 십일조는 정말로 제게 11미터의 공포였습니다.

“예전 부잣집 아들일 때는 부모님께 받는 용돈 중에서 드리는 십일조가 어렵지 않았겠지만,

너무도 가난하던 때에, 먹을 것 아껴가며 드려야 하는 십일조는 정말로 제게 11미터의 공포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점프는, 제가 가난한 신발가게 집 아들에게 한달 영어 과외비로 5만원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다’는 생각에 과외비를 거의 다 신발가게 집 아들 먹을 것 사주는데 써버린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콧물, 눈물 묻은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 5천원이 제가 십일조가 가진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 비밀은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돈의 제어 능력’, 쉽게 말해 돈에 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비밀 외에도 세 가지나 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유합니다.

먼저, 십일조를 하게 되면 모든 경제권이 하나님으로 옮겨간다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알아서 꺼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통장에 10만원도 안 되는 작은 돈으로 다시 유학 준비를 했고, 결국 3주 만에 1년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아 유타로 다시 왔던 기적을 체험했던 제 삶이 작은 증거가 됩니다.

둘째,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매달 그 십일조의 액수를 더 늘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타 땅을 다시 밟았을 때, 한 학기 정도의 학비만 마련해 온 상황이라 그 때의 유학생활을 저는 스스로 ‘시한부 유학생활’로 생각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계획할 수밖에 없는 경제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고, 지금 계획한 시간보다 2년을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일조의 액수가 매달 늘어감을 볼 때, 십일조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더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제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부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의 일조를 드리면서도 나머지 십의 구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돈을 쓸 때 조심스러워지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돈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바로 십일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지막 비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돈 때문에 참 많이 걱정하고, 울뻔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웃을 수 있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웃는다는 것이 돈이 많아져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 형편 역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 기쁘고, 흥분됩니다. 이것이 5천원으로 시작한 십일조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SL)

미 유타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 The Soullake 제 53호

Before and After, 감사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에서 원광식 안수집사로부터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참 마음처럼 되지 않아 기도제목 일순위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믿음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요, 또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는 것을 마음 속 깊이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할 일이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가족, 친구와 떨어져 멀리 타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하루하루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체험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활의 적응에서부터 이 곳에 온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광식, 최혜란 집사님의 가정은 하루하루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은 축복받은 가정이다. 작년 8월, 온 가족이 이 곳 솔트레이크시로 건너 와 인생의 제2막을 열게 된 이들. 한국에서 20년간 직업 군인으로 살아 온 그에게 있어, 이 곳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하에 오랜 시간을 종사한 사람은 일반 사회에서의 적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생을 살아 온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의 적응이라니… 가장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요, 순탄치 않았을 과정이었으리라.

인생 제2막의 중간 성적표를 매겨 보니, 꽤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온단다. 미국에 와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오래 전. 군에 있으면서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동경과 희망을 갖게 되었고, 장남 기상이를 먼저 유학을 떠나 보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이 곳 유타에 정착하였고, 시작하게 된 사업에도 열심히 매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만족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기쁨과 맛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한국에 소식을 전하는 이메일 제목을 항상 “살기 좋은 도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원광식 집사로부터”라고 써서 보낸다고 하였다. 그 동안의 생활을 이야기하자면 시련도, 나름대로의 불평도 당연히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가 직접 평가한 그의 성적표의 높은 점수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평가 덕목이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고 견제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십일조 생활일 것이라고 원 집사는 이야기하였다. 어디서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일 것이다. 이 세상은 돈을 쫓고 있고, 모든 문제는 돈이 화근이 아닌가? 헌금이나 십일조에 대한 권면은 그렇기에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내기 쉽지 않은 게 십일조이긴 합니다.” 웃으며 그가 말한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걸어 온 이 길들을 빨리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정말 순탄하게 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결국은 이 또한 주님과 나의 교제 중 하나일 뿐 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내 마음 속의 기쁨 가운데 조건 없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십일조는 믿음의 척도나 그런 것을 떠나, “내가 살아 움직이고 일할 수 있다는 감사의 증거”이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절약하며 사는 것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 것이다. 경제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금 = 믿음 + 감사라는 공식은 틀리지 않은 말일 것이다. 많고 적음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 Before, 믿음의 헌금을! After, 감사의 헌금을! 이러한 슬로건을 입에 달고 살 수 있기를 진정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십일조 생활을 나름 충실히 해왔다는 그에게 함께 나눌 만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있는지 은근히 물어보았더니, 특별한 것은 없다며 웃어버린다. “글쎄요. 뭐 크게 넉넉하지는 않은 가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나쁜 일에 돈이 나간다거나, 공돈이 나가는 일이 없어서 십일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십일조를 못했을 때는 꼭 명분 없는 지출이 생기는 걸 봐서, 내 수입의 십분의 일은 내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하하.” 맞다. 믿음의 가정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마음, 큰 복 두 가지를 가진 그가 참 부럽다

(SL) 김효신 기자